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의 영향요인

: 협력적 소비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사례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wareness of Efficiency in The Sharing Economy
: Focusing on The Viewpoint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in Seoul

송영현*
Song, Younghyun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 V. 결론

공유경제가 생활양식의 하나로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사람들에게 공유경제가 효율적으로 인식되어야 참여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개인과 사회가 기존 보다 합리적 수준의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영향의 작용 기제는 어떠한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도시위험 인식,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플랫폼 이용수준의 경우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경제위기와 실업 등을 주요 도시위험으로 인식하여 대여에 기반을 둔 소비행위를 주목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를 통해 경제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플랫폼 이용을 통해 여러 재화·서비스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기인한 결과이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적 측면의 도시위험이 강조되는 도시, 또는 시기에 공유경제를 확장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적 차원의 의미를 가진 공유경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논문 접수일: 2024. 3. 19. 심사기간: 2024. 3. 19. ~ 2024. 4. 22. 게재확정일: 2024. 4. 22.

제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교육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주제어: 공유경제, 협력적 소비, 효율성 인식

As the sharing economy becomes increasingly pervasive as a lifestyle, it has become crucial to understand how people aware and utilize it. As citizens become aware of the sharing economy and its efficiency, individuals and society are able to engage more in the sharing economy for producing and consuming goods and services rationally, thereby preventing environmental waste. Based on the above research background, this study analyzes key influencing factors on citizens' awareness of efficiency in the sharing economy and its mechanism in Seoul. The results are as follows: Awareness of urban risks, pursuit of environmental values, and level of platform use positively influence awareness of the efficiency in the sharing econom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 are as follows: Firstly, it needs to expand the sharing economy in cities or a certain period where there are economical urban risk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educations to make citizens understand environmental significance, and use the sharing economy as their lifestyles. Lastly, there is a need to ensure the enhancement of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education and promotion on the use of sharing economy platforms.

□ Keywords: Sharing Economy, Collaborative Consumption, Awareness of Efficiency

I. 서론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이들 정의가 공통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협력적으로 소비하여 이미 생산된 유희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사업모델이자 생활방식'으로 개념 지어 볼 수 있다(Acquier et al., 2017; Barile et al., 2021; Lessig, 2008; Luchetta, 2014; 송영현·최명식, 2020). 이러한 공유경제는 2010년대 이후 사람의 삶 속에 자리 잡으며 급속히 성장해왔다. 공유경제의 성장은 기존에 지속 되어오던 경제 성장세가 둔화·위축되며 개인이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혼자 소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비판적 인식이 강화되었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순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고 사회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조되었다는 점도 확산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상 김은란 외, 2015; 황영모 외, 2015). 다음의 통계 수치는 그간 나타난 공유경제의 가파른 성장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미화 약 186억 달러에 달하였고 2022년에는 미화 약 402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으로 명확한 공유경제 규모를 측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19년 상반기의 약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벤처투자액 규모, 20-40대 모두에서 50%를 상회하는 공유경제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국내 공유경제의 규모 및 확장세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¹⁾ 한편, 공유경제의 성장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공유경제가 침체될 거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처해졌다. 물건이나 공간 등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 모빌리티, 공유 숙박의 경우 이용률이 급감하였으며, 해당 분야 고용자들의 해고 문제도 크게 나타났다(임수민, 2020). 그러나 분야별로 부침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공유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변화되어 온 도시의 삶 속에서, 공유경제가 차별적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상 김상민, 2023; 이희정, 2023).

이처럼 공유경제가 생활양식의 하나로 보편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경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인식되어야 공유경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참여자가 많을수록 재화·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다양성과 이용가격 저하가 나타나 협력

1) 이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3.15.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025>) (검색일: 2024.03.10)

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용수준이 증대되기 때문이다(Luchetta, 2014; Langley & Leyshon, 2017). 이는 곧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 개인과 사회가 기존 보다 합리적 수준의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의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유경제의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개념화 되는 지, 그리고 그에 대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과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용주·이신형(2021), 김소라(2023), Belk(2014), Minoia & Jokela(2021), Möhlman(2015) 등 연구가 유사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이들 연구는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과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해당 문제를 부수적인 수준에서 검토 하고 있다. 예컨대, 권용주·이신형(2021)은 공유경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지향성을 잘 파악하여 그에 따라 서비스를 프레이밍 할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도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유경제 서비스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그들의 공유경제 이용의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일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이용 의도가 크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공유경제의 이용의도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서비스의 프레이밍 유형과의 관계에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Belk(2014), Minoia & Jokela(2021)의 연구 결과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두 연구는 공유경제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양면적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용자들이 공유경제의 재화·서비스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제공되고 개인·사회의 효용 극대화에 대한 고려가 적다고 해석할 경우, 공유경제가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앞선 권용주·이신형(202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대한 탐구가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본 연구가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효율성 인식과 영향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비해, 위 논의들은 공유경제 참여자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개인·사회의 효용 극대화에 대한 인식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를 집중 분석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김소라(2023)와 Möhlman(2015)의 연구는 공유경제의 참여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유형화 하였다는 점, 공유경제 참여자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다. 또한 공유경제 참여자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참고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보다는 공유경제 참여유형을 단순히 분류하거나 공유경제의 만족도만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 지역 커뮤니티의 소속 수준과 친근감, 신뢰 등 사회적 영향요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위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있어 주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영향의 작용 기제는 어떠한 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공유경제의 효율성을 어떤 이유로 긍·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영향기제를 밝히고,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추후 공유경제가 도시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며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은 공유경제의 활성화와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생산·소비, 그에 따른 자원절약으로 나타나는 환경적 낭비방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간 시민들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지와 그에 대한 영향요인들의 작용기제를 따져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도시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는 도시인 서울시를 대상으로, 위 연구 질문에 대해 답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의 주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시민들의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 환경적 가치의 추구수준, 플랫폼 이용 및 소득수준 등 요인이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 : 협력적 소비에 기초 한 경제적 효율성 인식

Lessig(2008), Botsman & Rogers(2010)등에 의해 소유(所有)가 아닌 공유(共有)에 기초한 공유경제의 개념을 구체화 한 이후, 공유경제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성장해 왔다. 공유경제가 사회에서 빠르게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다음의 이유가 있었다. 성장과 소비에 주안점을 두었던 경제체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던 것, 즉, 재화와 서비스의 과잉생산, 소유 기반 소비로 나타난 과잉소비라는 불합리성으로 경제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효했다. 이는 환경적 측면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는데,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이용률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개별 시민의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용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공유경제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으로써 실질소득이 증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구매 가격에 비해 저렴한 공유경제 재화와 서

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추가 이용할 수 있다는 대체효과로 인해 개인의 총효용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 Botsman & Rogers, 2010; Barile et al. 2021, 이준구·이창용, 2020).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결국 개인과 사회 모두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 공유경제가 효과적이었던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공유경제의 효율성이 현실에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이 공유경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인식함을 전제로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공유경제 재화와 서비스의 다양성 및 선택의 폭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Luchetta, 2014; Langley & Leyshon, 2017). 이는 결국 공유경제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가격 저하, 그에 따른 공유경제의 참여자 수 증가라는 선순환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위의 공유경제의 효율성과 그 인식 논의를 살펴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유경제가 기본적으로 협력적 소비에 기초를 두었다는 점이다. 소유가 아닌 공유를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함에 있어 자신만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화와 서비스를 빌려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인식에 기반을 둔 협력적 소비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때 개인과 사회 차원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것이 아닌, 이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를 한다는 점이다(송영현·최명식, 2020; 황영모 외, 2015).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여럿이 함께 소비하는 것과 이를 효율적이라고 인식하는 행위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오히려 과잉생산과 소비, 경제자원의 낭비라는 부작용 발생에 기여하게 된다.

협력적 소비의 중요성은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공유경제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를 포괄하며 확장되어 왔다. 앞서 설명한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형태와 더불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여 수요·공급의 비대칭을 해결하고 기존 시장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소비를 하게 하는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인터넷 상에 구현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는 플랫폼(platform) 경제, 공유경제화가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는 근접 경제(access economy),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재화와 서비스를 공동 소유하고 생산, 분배하는 커먼즈(common)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확장, 진화해왔다(송영현·최명식, 2020).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공유경제들은 하나의 형태로 독립되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가 합쳐져서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활용된다(Barile et al., 2021).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소비를 강조하는 공유경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재화·서

비스를 쉽게 연계하는 온디맨드 경제와 접근 경제를 합한 공유경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조합 중,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조합에는 협력적 소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 여러 비판과 함께 존폐의 위기에 놓일 수 있으며 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례로 공유경제의 대명사와 같았던 공유 자전거는 더 이상 성공사례로 얘기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유 자전거가 기존에 생산된 자전거라는 재화를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대여·이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공유 자전거라는 임대사업을 위해 자전거를 새로 생산하였고, 그로 인한 과잉생산·소비의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앞서 언급한 이미 생산된 재화·서비스에 대한 협력적 소비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오히려 과잉생산·소비라는 문제가 초래되었다.²⁾

위의 논의를 통해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얼마나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상기 논의를 종합해볼 때, 기(既)생산된 재화·서비스에 대한 협력적 소비를 통하여, 효율적 경제자원 배분과 이용률 제고, 경제자원의 낭비 방지, 개인의 총효용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믿는지, 믿는다면 얼마큼 믿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일 것이다. 즉,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협력적 소비를 통해 달성하게 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그 파생효과, 개인의 효용 극대화라는 경제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간략히 개념화해보면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이란 곧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라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할수록 공유경제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협력적 소비의 범위와 수준이 제고된다. 그로 인해 개인과 사회가 기존 보다 합리적 수준의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Affeldt et al., 2013; Luchetta, 2014). 위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공유경제의 효율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 어떤 요인들이 해당 인식에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의 영향요인

앞에서 공유경제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에게 효율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

2) 머니투데이. ‘빨간불 켜진 中 공유자전거…중소업체 수습 곳 파산’. 2018.02.06.(<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20615455693004>) (검색일: 2024.03.08)

다. 지금부터는 사람들의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요소로 작용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사람들이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적 측면의 효용 극대화, 합리적 수준의 생산과 소비, 자원 낭비 방지 등에 있어 유리하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무슨 요인들이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대해 긍·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공유경제의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³⁾ 특히 이들 요인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지를 깊게 탐구해보는 것은 후에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행할 시, 분석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 검토를 통해 연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과관계 방향을 형성하고, 이를 근거로 객관적인 연구 분석의 틀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상기 맥락에 따라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의 주요 영향요인을 아래처럼 도출해볼 수 있다.

1)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

김지영·전희정(2019)에 따르면,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은 ‘도시에 살고 있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지하는 정도’로 풀이된다.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은 도시의 복잡함을 반영하듯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설명되는데, 이지은 외(2014)는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을 자연적 위험,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김지영·전희정(2019)의 연구는 근린환경의 위험, 사회적 위험, 재난의 위험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를 통해 살펴볼 때, 도시민들은 도시 안의 위험을 복합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재호·이승중, 2012; 최충익, 2015). 이는 서울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서베이에서 도시위험을 자연재해, 감염, 안전사고, 경제위기와 실업, 사회갈등, 폭력·범죄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22). 즉, 신상영 외(2021)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도시민들은 도시 안의 위험을 복합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위험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곧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이라 풀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따져볼 수 있다. 이는 현재 시점에 대해 시민들이 도시위험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 지를 따져보는 정태적 도시위험 인식과, 과거나 현재에 비해, 현재와 미래의 도시위험의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

³⁾ Barile et al.,(2021), McLaren & Agyeman(2015) 등 연구에서 공유경제가 재분배, 비소비와 비소유(dis-ownership), 상품 서비스 시스템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효율적이라 인식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영향요인 검토의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였고, 또 변화할 지를 알아보는 동태적 측면의 도시위험 인식이 그것이다(신상영 외, 2021; 서울특별시, 2022). 특히 정태적 측면의 도시위험 인식을 중시하던 과거에 비해,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동태적 도시위험 인식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도시위험을 인식할 때 이전의 위험 상태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위험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 시점의 절대적인 인식 수준보다는 서로 다른 시점의 상대적인 위험수준의 변화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⁴⁾ 즉, 분석 시점에서 한 시민이 느끼는 도시위험의 인식수준은 과거 시점에서 자신이 느꼈던 도시위험과 지금의 도시위험이 얼마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비로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도시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향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명확하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 긍·부정의 상반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감염, 폭력·범죄 등을 다른 위험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도시 위험요소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러한 점에서 과거보다 현재의 도시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협력적 소비에 기반을 둔 공유경제는 위험을 키울 수 있기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고 인식될 수 있다(고원·유창석, 2021; Ert et al., 2016). 반면, 사람들이 보다 직접적인 경제요인인 경기침체, 실업, 소득저하 등을 다른 위험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도시위험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위험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보다 제한된 예산 하에서 합리적 소비행위를 하게 도와주는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박성렬·이정기, 2022; Lamberton & Rose, 2012).

2) 환경적 가치의 추구수준

사람들의 환경적 가치 추구 수준 역시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요소이다. 앞서 공유경제의 정의를 통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역시 공유경제의 기본방향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미 한 번 생산된 자원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최대한 이용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낭비 방지의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의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Botsman & Rogers, 2010). 더 나아가, 후대 도시민에게 좀 더 풍부한 경제자원을 물려주며 후세대와의 경제자원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확보할 수 있다(서울시립대학

⁴⁾ 행동경제학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은 사람들이 느끼는 현 시점의 효용과 손실의 가치가 이전 시점 가치 크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설명한다. 이 내용을 도시위험 분야에 적용하여 동태적이고 상대적인 측면에서 시민의 도시위험 인식 수준을 측정해볼 수 있다(이상 안기정 외, 2018, 신상영 외, 2021).

교 도시행정학과, 2014). 한편, 사람이 소비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이 추구하는 중점적인 가치는 소비결정에 있어 강력하고 포괄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나아가 소비에 대한 만족도, 효율성 수준 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박지영, 2019). 따라서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때,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인 환경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소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만약 공유경제의 환경적 가치 추구를 통해 경제자원 낭비 방지와 환경오염 수준 저감, 후세대와의 보다 많은 경제자원 공유라는 경제적, 환경적 측면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면,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분명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이다.

3) 플랫폼에 대한 이용수준

플랫폼 접근성은 공유경제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플랫폼과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개념이다. Acquier et al.(2017)에 따르면 공유경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틀로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 접근 경제(access economy)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사람끼리 디지털플랫폼을 통해서 탈중앙화(di-centralized)된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는 경제’, ‘덜 활용된(under-utilized) 자산의 활용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통한 임시적인(temporal) 접근성을 제고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존의 덜 활용된 자산을 필요한 만큼 협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핵심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전제는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이다. 사람들이 언제나 쉽게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덜 활용된 재화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과도 연계가 된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할수록 공유경제를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유경제의 기본적 작동이 전자 상거래서비스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해서 이뤄짐에 기인한다. 부동산과 교통수단, 중고 물품 공유 등을 포함, 거의 대다수의 공유경제 재화와 서비스 거래는 모두 온라인 상거래서비스 플랫폼에 의해서 이뤄지며(조휘형, 2022), 이를 통해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정보를 검색·비교하는데 있어 드는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Fradkin et al., 2017). 다시 말해, 공유경제 부분의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거래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찾는데 드는 탐색비용을 절감시키게 되고, 그 결과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소득수준

소득수준은 공유경제의 등장배경과 관계가 깊다. 앞서 2010년대 이후 국내외의 경제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그에 따라 개인의 소득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대역에 기반을 둔 소비형태, 즉 공유경제가 각광받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일견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공유경제 보다는 구매를 통한 소유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굳이 대여하지 않고 구매·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들을 이용함에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Pasimeni, 2021). 그러나 재화와 서비스의 공유 의향을 조사한 시민 의견조사 결과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송영현·최명식, 2020; 최연태·박상인; 2018; 황영모 외, 2019). 이들 연구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경제 재화와 서비스의 공유 의향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들의 소득이 충분히 높다하더라도 이들 역시 보다 많고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러한 성향이 공유의향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위의 논의는 그대로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과 결부시켜 이해해 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공유경제의 협력적 소비를 통해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총효용이 증대된다고 인식할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미 소유를 통해 충분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편하게 쓰고 있어 공유경제를 통한 협력적 소비는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즉, 소득수준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 간에는 상반된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1 과거 대비 현재의 전반적인 도시위험 수준이 달라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2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가설3 플랫폼 이용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가설4 소득수준은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가 2022년 실시한 서울 서베이의 시민조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해당 조사는 서울의 인구와 가구, 도시생활과 주거, 경제와 노동, 안전과 재난, 건강과 보건, 문화와 여가, 가치와 의식 등 10개 분야와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묻고, 모아진 의견들을 서울시의 현 상태 분석과 향후시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된 것이다. 조사의 대상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이 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가구원 5,0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문면접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질문 관련 문항들의 결측치를 처리한 이후, 3,526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편,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로 정하였다. 서울시는 공유경제가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도시이며, 2010년대 초부터 공유경제를 정책적으로 도입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도시이기도 하다(김상민, 2023).⁵⁾ 이를 통해 서울시가 타 도시들에 비해 공유경제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연구 질문에 대한 대표성 있는 분석이 가능한 공간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2년으로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서울시가 수행한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득함에 있어 가장 최신의 자료가 2022년 기준의 자료이며, 연구질문과의 부합성이 가장 높은 문항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베이 시민조사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이며, 이에 따라 2021년도의 설문조사 역시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과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2021년 시민조사의 경우, 코로나19라는 당시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질문들과 관련된 설문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방법과 순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우선, 양적 연구방법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기로 한다. 이는 종속변수인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이 그 수준에 따라 연속적으로 배열되기는 하였으나, 그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이성우 외, 2005, 김지영·이숙중, 2021). 또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분석결과의 해석을 위해 문헌조사, 개별 전문가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한편, 분석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5)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20년 초에 이르기까지 3기에 걸쳐 서울시를 공유도시화하는 공유경제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 바 있다. 또한 2020년대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은 2010년대의 도입, 성장·확산기를 거쳐 혼돈기에 와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알아보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론적으로 검토한 영향요인들이 서울시민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실제 영향을 끼치는지, 끼친다면 그 방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기로 한다.

2. 활용변수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아래와 <표1>과 같이 측정된다. 우선 종속변수인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이다. 앞서 이론적으로 논의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정의된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은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쓰고자 할 때, 그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화와 서비스를 ‘대여’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곧 시민들끼리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소비하는 협력적인 소비행위가 이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대한 설문문항은 이러한 협력적 소비의 관점이 반드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에서는 대여를 통해 공유경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질문하며, 이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의 5개 척도로 문항이 구성된다. 문항 내용에서는 추가적인 생산을 전제로 하는 ‘구매’가 아니라, 이미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대여’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사용(소비) 행위에 대해 시민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인식하는지를 묻고 있다.

한편, 주요 독립변수들에 대한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위험 인식’의 경우, 앞선 관련 연구 검토결과를 반영한 설문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민이 인식하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도시위험 수준을 동태적인 변화 측면에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과거 시점에서 느꼈던 전반적인 도시위험과 지금의 전반적인 도시위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한 설문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들의 도시위험 인식을 묻는 설문 문항은 현재 도시의 전반적 위험수준이 과거 5년 전에 비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① 위험이 많이 작아졌다, ② 위험이 약간 작아졌다, ③ 5년 전과 비슷하다, ④ 위험이 약간 커졌다, ⑤ 위험이 매우 커졌다의 5점 척도로 문항이 구성되었다.⁶⁾ 한편, 공유경제가

6) 도시의 전반적 위험수준을 묻는 질문이 다소 포괄적일 수 있기에,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 중 하나인 환경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사실이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에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을 독립변수 삼고 해당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시민들의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을 묻는 설문 문항은 친환경적인 재화·서비스를 구매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용의가 얼마나 큰지를 질문하며, ① 매우 작다, ② 약간 작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크다, ⑤ 매우 크다는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된다. ‘플랫폼 이용수준’의 경우, 공유경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플랫폼의 이용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문항 데이터가 없어 대리문항을 찾아 변수로 활용하였다. ‘플랫폼 이용수준’의 대리문항으로 시민들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수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공유경제 플랫폼은 곧 디지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유경제 관련 재화·서비스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를 통해 교환된다(Acquier et al., 2017; 조휘형, 2022). 따라서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수준은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수준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 이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플랫폼 이용수준’을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수준으로 측정하며, 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②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③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④ 자주 이용한다는 4점 척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 독립변수인 ‘소득수준’의 경우 시민들의 한 달 소득수준을 의미하며, ① 100만원 미만 - ⑩ 1,100만원 이상까지 매 100만원 소득구간에 대해 측정하였다.

통제변수의 경우, 앞서 살펴본 공유경제 관련 연구들을 고려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별(① 남, ② 여), 연령(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가구원수(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이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에 대한 직업(① 관리·전문직, ② 사무직, ③ 현장직, ④ 기타), 학력(① 중졸 이하, ②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③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④ 대학원 이상)을 통제변수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변수의 내용 및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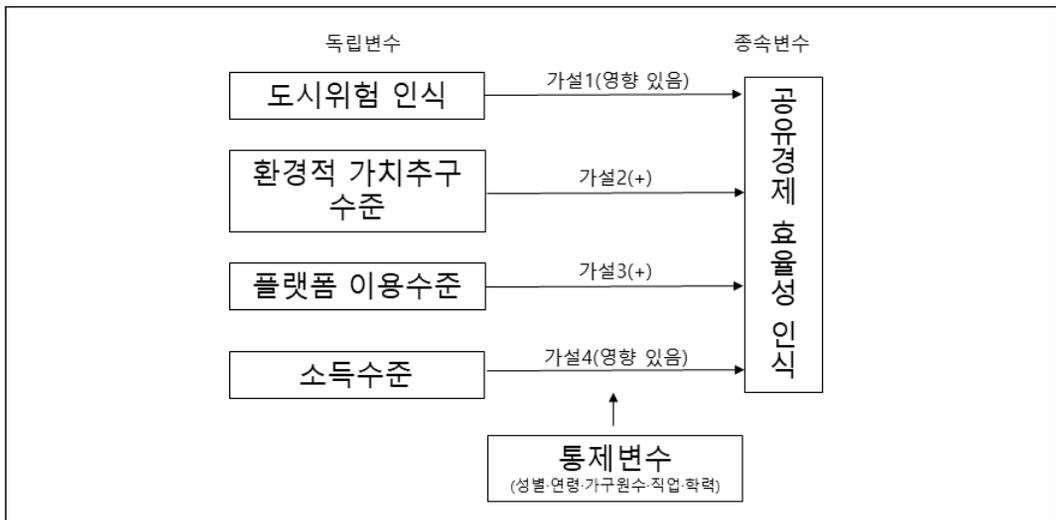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측정
종속변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대여를 통해 공유경제 재화·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측정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동의한다 ⑤ 매우 동의한다

주요 위험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11가지의 도시위험 요인(자연재해, 감염, 안전사고, 폭력·범죄, 컴퓨터 바이러스·보안·정보유출, 인터넷 괴롭힘, 경제위기, 실업, 사회갈등, 부정부패,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준 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도시위험 인식을 측정하였다 (서울시 빅데이터 담당관실 서울 서베이 담당자 전화 인터뷰 결과, 인터뷰 시행일 : 2024.04.09.)

구분	주요 내용	측정
독립변수	도시위험 인식	현재 도시의 전반적 위험수준이 과거 5년 전에 비해 얼마큼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지를 측정 ① 위험이 많이 작아졌다 ② 위험이 약간 작아졌다 ③ 5년 전과 비슷하다 ④ 위험이 약간 커졌다 ⑤ 위험이 매우 커졌다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친환경적인 재화·서비스 구매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용의의 크기를 측정 ① 매우 작다 ② 약간 작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크다 ⑤ 매우 크다
	플랫폼 이용수준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이용수준 측정 ①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②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③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④ 자주 이용한다
	소득수준	한 달 소득수준 측정 ① 100만원 미만 - ⑪ 1,100만원 이상 ※매 100만원 소득구간을 하나의 척도로 삼아 총 11개 소득구간에 대해 측정
통제변수	성별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응답자 연령대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가구원수	응답자 소속 가구의 가구원 수 ① 1인 ② 2인 ③ 3인 ④ 4인 이상
	직업	응답자 직업 종류 ① 관리·전문직 ② 사무직 ③ 현장직 ④ 기타
	학력	응답자 학력 수준 ① 중졸 이하 ②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③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④ 대학원 이상

앞서 논의한 독립, 종속, 통제 변수 등 활용변수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의 틀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의 틀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서울시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성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관련 변수에 대한 설문 응답자들의 표본 특성과 분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종속변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여를 통해 공유경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데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평균은 3.50점으로 나타났다. 빈도를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로 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37.72%, '다소 동의한다'로 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45.3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소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2.7%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공유경제를 비교적 효율적이라고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도시위험수준이 과거(5년 전)에 비해 얼마큼 변화했는지를 묻는 도시위험 인식의 경우 응답자 평균이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도시위험이 '5년 전과 비슷하다', 위험이 약간 커졌다'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전체 대비 37.95%, 42.60%로 나타나 현재 서울시의 도시위험이 과거 5년 전과 비교할 때 개선되지 않았거나 일정 부분 증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용의의 크기를 묻는 환경적 가치 추구수준의 경우 응답자 평균이 3.43점으로 도출되었으며, 용의의 크기가 '보통이다'와 '약간 크다'로 답한 비율이 각각 전체 대비 35.51%, 전체 대비 47.36%로 나타나 이들이 응답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이용수준의 경우 대리지표인 전자상거래 서비스 이용 수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다소 이용하거나(전체 대비 37.63%), 자주 이용한다고(전체 대비 44.81%)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응답자 평균 역시 3.23점으로 나타나 평균적인 이용수준 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독립변수인 소득수준의 경우 평균 점수가 4.03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평균적인 소득이 300-4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됨을 확인하였으며, 응답자 대다수의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전체 대비 31.79%), 300-400만원 미만(전체 대비 33.58%), 400-500만원 미만(전체 대비 15.51%) 수준에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가구원수, 직업, 학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남자는 전체 대비 57.66%, 여자는 전체 대비 42.34%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역시 20대 이하(전체 대비 18.07%), 30대(전체 대비

21.04%), 40대(전체 대비 20.28%), 50대(전체 대비 19.54%), 60대 이상(전체 대비 21.07%)로 고르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가구원수의 경우 1인(전체 대비 13.05%), 2인(전체 대비 24.73%), 3인(전체 대비 33.58%), 4인 이상(전체 대비 28.64%)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에 비해 2 이상의 가구가 많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전체 대비 5.45%) 사무직(전체 대비 57.94%), 현장직(전체 대비 36.50%), 기타(전체 대비 0.11%)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사무직과 현장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 학력은 중졸 이하(전체 대비 2.35%), 고등학교 재학·졸업(전체 대비 32.27%), 대학교 재학·졸업(전체 대비 64.97%), 대학원 이상(전체 대비 0.40%)으로 나타나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 재학 또는 졸업자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2〉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결과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빈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1	5	3.50	0.7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6명, 0.4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322명, 9.13% 보통이다 : 1,330명, 37.72% 다소 동의한다 : 1,600명, 45.38% 매우 동의한다 : 258명, 7.32%
	도시위험 인식	1	5	3.42	1.40	위험이 많이 작아졌다 : 116명, 3.29% 위험이 약간 작아졌다 : 314명, 8.91% 5년 전과 비슷하다 : 1,338명, 37.95% 위험이 약간 커졌다 : 1,502명, 42.60% 위험이 매우 커졌다 : 256명, 7.26%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1	5	3.43	0.79	매우 작다 : 29명, 0.82% 약간 작다 : 413명, 11.71% 보통이다 : 1,252명, 35.51% 약간 크다 : 1,670명, 47.36% 매우 크다 : 162명, 4.59%
	플랫폼 이용수준 ^{주1}	1	4	3.23	0.83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163명, 4.62%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 456명, 12.93% 다소 이용하는 편이다 : 1,327명, 37.63% 자주 이용한다 : 1,580명, 44.81%
	소득수준 ^{주2}	1	11	4.03	1.40	100만원 미만 : 17, 0.48% 100-200만원 미만 : 248, 7.03% 200-300만원 미만 : 1,121, 31.79% 300-400만원 미만 : 1,184, 33.58% 400-500만원 미만 : 547, 15.51% 500만원 이상 : 409, 11.61%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빈도
통제변수	성별	1	2	1.42	0.49	남 : 2,033명, 57.66% 녀 : 1,493명, 42.34%
	연령	1	5	3.05	1.40	20대 이하 : 637명, 18.07% 30대 : 742명, 21.04% 40대 : 715명, 20.28% 50대 : 689명, 19.54% 60대 이상 : 743명, 21.07%
	가구원수	1	4	2.78	1.00	1인 : 460명, 13.05% 2인 : 872명, 24.73% 3인 : 1,184명, 33.58% 4인 이상 : 1,010명, 28.64%
	직업	1	4	2.31	0.57	관리·전문직 : 192명, 5.45% 사무직 : 2,043명, 57.94% 현장직 : 1,287명, 36.50% 기타 : 4명, 0.11%
	학력	1	4	2.63	0.54	중졸 이하 : 83명, 2.35% 고등학교 재학·졸업 : 1,138명, 32.27% 대학 재학·졸업 : 2,291명, 64.97% 대학원 이상 : 14명, 0.40%

주1: 대리지표인 전자상거래서비스 이용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용 빈도가 잦을수록 플랫폼 이용 수준이 크다고 판단

주2: 100만원 미만부터 1100만원 이상까지 매 100만원 소득구간(총 11개 구간)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표에서는 주요 결과만 축약하여 표시

2.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LR 검정 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chi제곱값이 유의수준 1% 내에서 각각됨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내 모든 설명변수의 추정계수가 0이 아니며, 설명 변수들은 모두 종속변수의 선택범주를 택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판명되었다.⁷⁾ 상세한 분석결과는 <표3>과 같이 도출되었으며 의미는 다음으로 풀이된다. 독립변수 중 도시위험 인식(odds=1.070),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odds=1.761), 플랫폼 이용수준(odds=1.109)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변수들의 1단위 값이 증가할수록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

7)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경우 chi제곱 분포를 따르는 LR(likelihood ratio) 통계치를 활용하여 모형의 추정결과가 전반적으로 유의한 지를 살펴보게 된다. Pseudo R²의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의 R²와 달리 설명변수의 변동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총변동분을 나타내지 않으며, 보조적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Gujarati, D, 2015/2016).

고 인식할 승산(또는 가능성)이 각각 7%, 76.1%, 10.9%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반면, 독립변수 중 소득수준의 경우, 소득수준의 증가와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 간의 통계적 인과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가구원수, 직업, 학력 역시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결과

구분		Odds Ratio	Coef.	S.E (Coef.)	Z	
독립변수	도시위험 인식	1.070*	0.068*	0.037	1.82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1.761***	0.566***	0.043	13.18	
	플랫폼 이용수준	1.109**	0.103**	0.043	2.38	
	소득수준	0.980	-0.020	0.026	-0.79	
통제변수	성별(남성)	0.967	-0.034	0.067	-0.52	
	연령	0.990	-0.010	0.029	-0.35	
	가구원수	1.038	0.037	0.033	1.13	
	직업 (관리·전문직)	사무직	1.128	0.120	0.151	0.80
		현장직	0.999	-0.001	0.158	-0.01
		기타	3.246	1.177	0.893	1.32
학력	0.973	-0.028	0.078	-0.35		
N		3,526				
Log likelihood		-3983.809				
Pseudo R2		0.027				
LR chi2(11)		217.660***				

주1: * p<0.1, ** p<0.05, *** p<0.01

주2: 독립변수의 괄호는 참조집단을 의미

주3: 순서형 로지스틱 분석에서는 비례승수가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속변수 선택범주에 대한 절편값을 도출하는데, 논의의 간략화를 위해 본 표에서는 4개 절편값 미제시

지금부터 연구 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수준의 증가는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태적인 관점에서 현재 도시의 전반적 위험수준이 과거 5년 전에 비해 더 커졌다고 인식할 경우,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대여하여 쓰는 협력적 소비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때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도시위험이 여러 위험요소들을 포괄하는 전반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있는 주요 도시위험은 감염, 경제위기와 실업, 사회갈등, 폭력·범죄 등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서울특별시, 2022). 이들 도시위험 중 몇몇 요인들은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있어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할 수 있다.⁸⁾ 예컨대 시민에게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폭력·범죄 등이 다른 도시위험 요소들에 비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 경우, 이들 요소에 취약한 공유경제를 통한 협력적 소비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시민들의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 재화와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자신의 감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회비용을 고려할 경우, 시민들은 공유경제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폭력과 범죄에 대한 우려 역시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공유 숙박에서 자주 드러났었던 폭력, 범죄문제가 과거보다 현재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이들이 다른 도시위험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인식할 경우,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크게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은 낮아질 수 있다(이상 고원·유창석, 2021; Ert et al., 2016). 반면, 시민들이 경제위기와 실업 등을 다른 위험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요소라고 인식할 경우, 구매가 아닌 대여에 기반을 둔 소비행위인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박성렬·이정기, 2022; Lamberton & Rose, 2012).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위험이 다른 위험에 비해 크게 느껴질 때, 보다 효율적으로 상품을 소비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며, 대여를 통한 협력적 소비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느끼는 경제적 위험 수준이 과거에 비해 커졌고 그 위험이 다른 도시위험 요소들보다 심각한 위험이라고 인식할 경우, 시민들이 소비행위를 함에 있어 고려하는 예산이 제약될 것이며, 그 제약된 예산 하에서 구매에 비해 저렴한 이용가격으로 필요한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상기 맥락에 근거하여 분석결과 의미의 파악해 볼 때, 서울시민의 도시위험 인식과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성 인식 간의 관계에 있어 경제위기, 실업과 같은 경제위험의 작용이 다른 도시위험요소에 의한 작용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울시민이 자신의 경제적 위험이 과거에 비해 커졌다고 인식하고, 그것이 다른 도시위험요소들에 비해 더 큰 위험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량을 줄이고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경제의 방

8) 2022년 서울 서베이는 가구주·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시민조사로 나누어서 이뤄졌다. 가구주·가구원 대상의 조사 결과는 공유경제 관련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있었으나, 시민조사 결과와는 달리 앞서 언급한 11개 개별 도시위험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한 바 있다. 가구주·가구원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염(7.42점), 경제위기(6.92점), 실업(6.81점), 폭력범죄(6.52점)는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위험요인들은 시민의 위험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도시위험 요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을 통해 대여하여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예산 하에서 최적 소비를 하게 도와주는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게 됨을 의미한다. 해석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 서베이 시민조사의 경우 2022년 9-10월에 진행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부터 약 5개월 이상 흐른 시점이다. 이 시기 동안 사적 모임, 공연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비례하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인식은 조사 대상시점에서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⁹⁾ 한편, 공유숙박에서 주로 나타나는 범죄와 폭력문제의 경우, 서울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의 공유숙박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내국인의 이용은 금지되어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¹⁰⁾ 즉, 서울시민이 공유숙박 이용을 통해 범죄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 그에 따른 기회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감염, 폭력·범죄에 대한 위험인식과는 달리, 경제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간에는 인과관계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 관련 전문가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이 느끼는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2022년 2분기에 소폭 반등한 후 2022년 3분기부터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이는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위험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서울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의 변화는 소비자태도지수, 경기판단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서울지역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재의 경기상황, 전년과 비교한 서울지역의 현재 경기판단을 지수화한 것이다. 지수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3분기의 두 지수값이 전분기인 2022년 2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곧 서울시민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¹²⁾ 이 같은 맥락에서, 서울시민들이 경제적 위험을 다른 도시위험들에 비해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제한된 예산 하에서 최적 소비를 하게 도와주는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충분히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감염병으로서의 코로나19의 영향이 확연히 줄어든 2022년을 검토한 결과라는 점, 즉 특정 시기의 상

9) 경기도 소재 대학 도시방재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인터뷰 시행일 : 2024.04.10).

10)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에서는 도시지역에서의 공유숙박업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서울연구원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한 선임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인터뷰 시행일 : 2024.04.11).

12)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동향에 따르면, 두 지수의 값이 각각 87에서 76.1로, 70.8에서 57.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전반적 경기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전년 대비 현재의 서울 경기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https://www.si.re.kr/cun>) (검색일: 2024.04.11.).

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승산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환경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용의가 커질수록, 공유경제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대여하여 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인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공유경제를 통해 협력적인 소비가 이뤄질 경우, 한 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활용빈도가 올라가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추가 생산과 경제자원의 과잉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송영현·최명식, 2020). 재화와 서비스의 과다 생산을 막음으로써, 희소한 경제자원들의 낭비를 줄이게 되어 경제적인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이준구·이창용, 2020). 이처럼 경제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 즉 경제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도시민이 삶을 꾸려나감에 있어 희소하고 한정된 경제자원을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게 되며, 후 세대에게 물려줄 경제자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게 때문이다(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2014). 만약 시민들이 공유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최대한 협력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친환경적 순환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유경제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체제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재사용'과 '함께 하는 사용'을 통해 경제자원을 적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순환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송현우 외, 2022).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 결과를 살펴봤을 때, 서울시민들의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이 높을 경우, 공유경제의 협력적 소비를 통해 경제자원 낭비를 막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고, 그 점에서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플랫폼 이용수준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플랫폼 이용수준이 클수록 공유경제를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즉, 서울시민들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에 대한 활용 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경제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유경제의 기본적 작동이 전자 상거래서비스 플랫폼에 의해서 이뤄짐에 기인한다.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과 교통수단, 중고 물품 공유 등 공유경제 서비스는 모두 온라인 상거래서비스 플랫폼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사실상 공유경제와 플랫폼 경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조휘형, 2022). 즉, 공유경제 서비스를 적극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대한 쉬운 접근과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하는데 있어 드는 시간비용, 즉 탐색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Fradkin et al., 2017). 시민들이 공유경제 분야의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적은 시간을 들여 쉽고 빠르게 찾아내고 이들을 이

용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시민들이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본인들이 재화와 서비스 대여할 때 지불해야 하는 탐색비용이 기존에 비해 낮아지게 되고, 이러한 시간비용 절감을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으로 느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로 문 외(2020)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의 이용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예약과 결제 등 측면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이 이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어야 하고,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사람들의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맥락에서 위의 내용을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예약과 결제, 정보 검색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경우, 시민들이 이 플랫폼을 보다 빈번하게 활용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편하게 찾고 쉽게 이용함으로써 개인의 효용수준을 올리게 되며, 결국 공유경제가 효율적이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수준의 경우, 현재의 소득수준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 간에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화와 서비스를 대여하지 않고 소유·구매할 것이므로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나, 반대로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협력적 소비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어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살펴본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풀이해볼 필요가 있다. 소득수준, 경제적 측면의 도시위험에 대한 인식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간의 관계를 다음처럼 해석해볼 수 있다. 서울시민은 현재의 소득수준보다는 경제적 측면의 도시위험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느낄 경우 공유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를 효율적이라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소라(2023)의 연구결과와 앞선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통해 볼 때,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기 상황에서 서울시민들은 현재의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소비행위를 협력적 또는 개인적으로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비교한 현재의 경제적 위험이 얼마큼,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변수들과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간에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별, 연령, 가구원수, 직업, 학력 등의 요소는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이 도출되었다. 도시민의 위험인식,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플랫폼 이용수준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의 관계를 검증하는 가설 1, 2, 3은 채택되었으며, 소득수준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4>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연구 가설의 채택 및 기각

구분	내용	채택/기각 여부
가설1	과거 대비 현재의 전반적인 도시위험 수준이 달라졌다고 인식하는 것은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채택
가설2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채택
가설3	플랫폼 이용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채택
가설4	소득수준은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기각

3. 토론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 추후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관련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 볼 수 있다. 시기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 도시위험 인식과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간의 인과관계, 사회적 가치추구 수준과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간의 인과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우선, 도시위험 인식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 간의 인과관계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22년이 아니라 그 이전인 코로나19가 한창이던 감염병에 민감한 시점, 폭력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기가 커진 시점에서도 동일하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감염병으로서의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히 희석된 2022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뤄졌다. 만약 해당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에서 동일한 연구질문이 주어졌을 경우, 경제적 측면에서의 도시위험이 아니라, 감염, 폭력과 범죄와 같은 도시위험들이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과 인과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예컨대, 공유경제를 통한 협력적 소비로 인해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 공유경제를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폭력과 범죄 요인 등이 주요 도시위험으로 인식되는 시점에서는 도시위험 인식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성별, 연령별로 인과관계의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다.¹³⁾

한편, 공유경제의 사회적 가치추구와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과 관련된 주제도 추후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가 사회적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되어온 만큼,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해온 공동체 간 이익 공유,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 지역 공동체의 문

13) 2021년 서울서베이의 경우, 이 같은 심화된 연구 질문을 검증할 수 있는 형태의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분석을 실시할 수 없었다. 또한 2022년 서울서베이 시민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도시위험 인식과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있어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검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제 해결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에 대한 검토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¹⁴⁾ 이러한 필요성은 서두에서 공유경제를 정의할 때 살펴본 것과 같이, 공유경제가 경제나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테면 사회적 경제를 잘 이해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살펴볼 때, 그들의 사회적 가치 추구 수준이 높을수록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때로 공유경제가 기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던 여러 수단들에 비해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사회적 가치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행·재정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이라 하더라도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회적인 공헌이 가능함을 주장하며 나타났던 공유 숙박이 민박을 대체하며 도시민의 주거비를 올리기도 하고, 공유 차량이 택시기사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공유경제를 비효율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추구와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사이에는 긍·부정의 인과관계 형성이 모두 가능하다. 앞선 전제 하에서, 실제 도시민들이 사회적 가치추구와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알아보는 실증분석이 추후 이뤄질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울시민들이 공유경제의 효율성을 인식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서울시민들의 도시위험 인식,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플랫폼 이용수준, 소득수준과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 중 도시위험 인식,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 플랫폼 이용수준의 경우 공유경제의 효율성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위험 인식에 있어 시민들이 경제위기와 실업 등의 경제적 위험을 다른 도시위험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도시위험으로 인식할 경우, 구매가 아닌 대여에 기반을 둔 소비행위인 공유경제

14) 황영모 외(2015), 성영조 외(2016), 송영현·최명식(2020), 신상준 외(2023) 등 많은 연구들이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였다.

를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환경적 가치추구 수준이 높을 경우, 공유경제의 협력적 소비를 통해 경제자원 낭비를 막게 된다는 점을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그 점에서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이용 수준의 경우, 공유경제 플랫폼을 잘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유경제 분야의 다양한 재화,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찾아내게 되고, 그로 인해 이들 재화·서비스를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를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도시위험 인식수준과 관련된 정책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경제적 위험수준이 높은 시기, 또는 도시들의 경우, 시민들이 공유경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해당 시기, 또는 도시들을 선별하여 공유경제를 좀 더 확장하는 정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결과에 더하여, 환경적 가치수준과 공유경제 효율성 인식과의 인과관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도 검토하였다. 공유경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이 비단 개인 차원이 아니라, 환경적 차원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공유경제의 재화·서비스를 활용한다는 행위가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시민들로 하여금 공유경제가 단순히 효율적인 상거래 행위가 아니라, 개인과 환경적 측면의 효율성을 고루 거두게 하는 성숙한 시민참여 활동임을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플랫폼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공유경제인 만큼, 공유경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나이와 세대를 막론하고 디지털 격차 없이 쉽고 편하게 공유경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관련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도시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교육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유경제 플랫폼 역시 계속 진화해왔으며, 그 진화를 따라잡는 교육은 지속되어 오지 못한 게 현실이다.¹⁵⁾ 따라서, 상기 현실을 반영하여 공유경제 플랫폼 관련 교육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우선, 시간적 측면의 한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2022년이라는 특정시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만일 타 년도와 대비되는 해당 년도의 경제사회적 특성이 있을 경우, 연구 질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간적 측면의 한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서울시라는 공유경제 분야의 대표성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타 도시의 상황을 함께 분석하여 보편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아

15) 심연미(2023)의 연구는 디지털 소외계층이 겪는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정책의 안정성,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쉽게도 우리나라에선 공유경제에 대해 도시 간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설문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후 해당 조사가 실시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와 국내 타 도시의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 입체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의 보편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논의를 확장한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원·유창석. (2021). 공유경제 숙박서비스 수용에 있어서 인지된 위험의 효과 연구. 「한국혁신학회지」, 16(2): 61-84.
- 권용주·이신형. (2021). 혜택 지향 vs. 수익 지향: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프레이밍이 기업 탐욕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의태오 미치는 효과. 「마케팅연구」, 36(4): 109-133.
- 김상민. (2023). 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의 전환: 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 역할에 대한 서울시 사례 분석. 「지방행정연구」, 37(1): 281-318.
- 김소라. (2023). 위드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유형. 「한국콘텐츠학회지」, 23(1): 562-578.
- 김은관·차미숙·김상조·박미숙.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지영·이숙중. (2021). 공공임대주택 거주민과 일반아파트 거주민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30(1): 261-288.
- 박성렬·이정기. (2022).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유용성의 매개효과. 「경영학연구」, 51(3): 729-759.
- 박지영. (2019). 「소비가치가 공유경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소유 동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2014). 「도시행정론」. 박영사.
- 서울특별시. (2022). 「2022년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 서재호·이승중. (2012).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광역차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20.
- 성영조·김군수·김을식·민병길·송승현·한영숙. (201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 송영현·최명식. (2020). 지역차원의 공유경제 정책방향-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104: 99-115.
- 송현우·배정윤·한인섭. (2022). 순환경제 관점의 국내 자원순환 정책분석 : 2018-2020년 5개 정책을 대상으로. 「한국도시환경학회지」, 22(2): 39-48.
- 신상영·조권중·남현정·김상균. (2021). 「서울시민 재난·사고 위험인식 특성과 안심도시 시사점」. 서울연구원.
- 신상준·최준규·오단이. (2023). 경기도 사회적경제 공유협업사업 참여자의 인식 차이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6(1): 205-236.
- 심연미. (2023).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튜터 정책 과제. 「창의정부문화연구」, 9(1): 33-43.
- 안기정·김범식·김승연·이진학. (2018). 「행동경제학의 정책 활용방안」. 서울연구원.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박영사.
- 이준구·이창용. (2020). 「경제학원론」. 문우사.
- 이지은·강민성·이승중. (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이희정. (2023). 한국사회 공유경제의 의미와 변화: 차량공유경제 논쟁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문화와 사회」, 31(3): 225-278.
- 임수민. (2020). 「팬데믹 시대, 플랫폼 경제의 위기와 기회」. 2020 KISA Report Vol. 7.
- 장로문·이남병·이동명·서철승. (2020). 공유경제 플랫폼의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공학학회지」, 25(1): 107-121.
- 조휘형. (2022).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서비스 성과요인에 관한 개념적 접근. 「경영과 정보연구」, 41(2): 1-19.
- 최연태·박상인. (2018). 신뢰가 공유경제 플랫폼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21(4): 103-125.
- 최충익. (2015). 위험사회의 국토안전관리에 대한 고찰.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7(1): 15-25.
- 황영모·이인우·오윤덕·신동훈. (2015).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황영모·임승현·배균기·정호중·김수용. (2019). 「전라북도 공유자산 실태조사 및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북연구원.
- Gujarati, D. (2015). 「예제를 통한 계량경제학 제2판」, 강달원·김윤영·제상영·차정수·홍찬식 역, 시그마프레스.
- Acquier, A., Daudigeos, T., and Pinske, J. (2017). Promises and Paradoxes of The Sharing Economy: An Organizing Framework.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25: 1-10.
- Affeldt, P., Filistrucci, L., and Klein, T. J. (2013). The Determinants of Online Review Informativeness: Evidence from Field Experiments on Airbnb. *The Economic Journal*, 123: 505-523.
- Barile, S., Ciasullo, M. V., Iandolo, F., and Landi, G. C. (2021). The city role in the sharing economy: Toward an integrated framework of practices and governance models. *Cities*, 119: 1-13.
- Belk, R. (2014). Sharing Versus Pseudo-Sharing in Web 2.0. *The Anthropologist*, 18(1): 7-23.
- Botsman, R., and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Harper Business.
- Ert, E., Fleischer, A., and Magen, N. (2016). Trust and reputation in the sharing economy: The role of personal photos in Airbnb. *Tourism Management*, 55: 62-73.

- Fradkin, A., Grewal, E., and Holtz, D. (2017). *The Determinants of Online Review Informativeness: Evidence from Field Experiments on Airbnb*. Technical Report, Working Paper.
- Lamberton, C. P., and Rose, R. L. (2012). When is Our Better than Min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Altering Participation in Commercial Sharing Systems. *Journal of Marketing*, 76(4): 109-125.
- Langley, P., and Leyshon, A. (2017). Platform Capitalism: the Intermediation and Capitalisation of Digital Economic Circulation. *Finance and Society*, 3(1): 11-31.
- Lessig, L. (2008). *Remix: Ma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 Luchetta, G. (2014). Is the Google Platform a Two-sided Market?.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 10(1): 185-207.
- Mclaren, D., and Agyeman, J. (2015). *Sharing Cities. A Case for Truly Smart and Sustainable Cities*. MIT Press.
- Minoia, P., and Jokela, S. (2021). Platform-Mediated Tourism: Social Justice and Urban Governance Before and During Covid-19.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30(5): 951-965.
- Möhlman, M. (2015). Collaborative Consumption: Determinants of Satisfaction and The Likelihood of Using A Sharing Economy Option Again. *Journal of Consumer Behavior*, 4(3): 193-207.
- Pasimeni, F. (2021). The Origin of The Sharing Economy Meets The Legacy of Fractional Ownership.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319: 1-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3.15.). 정책자료 공유경제.
- 머니투데이. (2018.02.06.) 빨간불 켜진 中 공유자전거...중소업체 수십 곳 파산.
-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동향 : <https://www.si.re.kr/cun>

송영현: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충남연구원을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The spatial spillover effec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network in cities: a case of the high-tech industry of Yangtze River Delta”, “지역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 방향: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확충효과 모의실험-충청남도를 사례로-”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정책 등이다(pm1032song@uos.ac.kr).